

보도시점 2026. 8. 25.(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8. 24.(월)

기후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논의

-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 논의
- 2030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제도, 시장제도, 전력망확충 등 정책 방향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세계적인(글로벌)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구글·ASML 등)들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첨단산업 투자와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여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보급확대 및 이격거리 개선, △국·공유지 활용 및 계획입지 등 입지제도 혁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통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제도 혁신, △국가전력망 확충 등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참석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 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입지, 시장, 전력망 혁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 세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부 - 글로벌반도체협회(SEMI) 간담회 개최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박계영 (044-203-5363)
			주무관	이예슬 (044-203-5358)



□ 간담회 개요

- (배경)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계 요청으로 국내 재생e 정책방향 소개
- (일시) '26. 8. 26(수) 15:00 ~ 16:30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최·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SEMI
- (참석대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구글·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 논의 내용

- RPS 개편, 이격거리 규제 개편, 전력망 확충, 기업의 비용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 관련 소통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5:00~15:03 ('0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3~15:05 ('02)	■ 인사말	에너지전환정책실장
15:05~15:20 ('15)	■ 기업 질의 및 건의	참석자 전원
15:20~16:25 ('55)	■ 정책 간담회	에너지전환정책실장
16:25~16:30 ('05)	■ 폐회	